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역동경제 평창

9.5(화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 일시	2017. 9. 4. (월)	담당 부서	자동차항공과
담당 과장	박종원 과장(044-203-4322)	담 당 자	임채욱 서기관(044-203-4327) 김기열 사무관(044-203-4322)

산업부,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

-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-

- 현대·기아차, 중국진출 협력업체를 위한 투자비 선지급(2,500억원) 방안 발표 -

- 한국GM 신임 사장, "GM의 사업 성과 및 수익창출 시장에 한국도 포함"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9.4.(월) 12: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* 대회의실에서 **백운규 장관 주재**로 **자동차업계 간담회**를 가졌다.

* 자동차산업협동조합 : '6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제1호 협동조합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, 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

○ 간담회는 **자동차산업이 당면한 현안**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, 친환경·자율주행차 등 **미래차 분야의 투자 확대**와 **상생협력 방안 등**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.

* 한국GM 카젬 신임사장(9.1임명)을 포함한 완성차 5개사 및 1·2차 부품 협력사 등 참석

<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 :** '17. 9. 4(월) 12:00 / 자동차산업협동조합(대회의실 5F)

○ **참석자 : (정부)**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시스템산업정책관 등
(총14명) **(업계)** 완성차 5개사 대표완성차 5사 대표, 자동차 부품기업 3개사, 자동차 산업협회장, 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,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

□ 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자동차산업이 **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**하고, **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**하기 위해서는 **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**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우선,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 등 **융복합화와 서비스화**가 가속화하는 **4차 산업혁명시대에 친환경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경쟁력을 확보**하고, **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노력**하겠다고 **말했다.**

○ 아울러, **중소·중견 부품업체의 역량 강화**를 통해 보다 **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**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.

○ 자동차업계가 **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**하고 **양질의 일자리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**투자 걸림돌을 적극 발굴·해소**하고 연구개발(R&D), **금융, 세제 등 각종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**하겠다고 **강조했다.**

□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도 **과감한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와 신차 출시** 등을 통해 **미래차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**하고, **완성차와 협력업체 간**의 **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**

○ **(현대·기아차)**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**지난해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**하고, 전문 연구개발(R&D) 인력 확충, 친환경차 개발센터 구축 등 **미래차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**

- 중국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**2,500억 원 규모로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다.**

* 현재 5~6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있는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* 산업은행도 사드배치 관련 중국진출 피해기업에 대해 금융지원

【 중국에 진출한 우리 피해기업 지원대책 현황 】

- **(산업은행)**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별배정(5,000억원), 경영안정자금 지원(500억원), 중소기업특별상환유예 등
- **(KOTRA)** 현지 부품기업 대상 노동법 등 법률대응 지원 및 완성차 업체에 납품기회 확대를 위한 GP(Global Partnering) 사업 확대
- **(무역보험공사)** 수출보증 한도 2배 확대 및 보증료 50% 할인 등
- **(중기부)**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자금 지원('17년 1,250억원)

- 현대·기아차는 지난 7월 **상생협력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·3차 협력사로 확대**하고, **총 1,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**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

- 한편, **내수 활성화 촉진**을 위한 **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.**

○ **(한국GM)** 신임사장 카허 카젬은 **"제네럴모터스(GM)는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**하고 **사업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**, 여기에 **한국도 포함**된다."라고 말했다.

- **한국 제네럴모터스의 경쟁력 및 비용 구조를 향상**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, 이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한 **불확실성 해소가 필요**하다고 건의했다.

○ **(르노삼성)**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**한국의 전기차 시장 선도**를 위해 **'22년까지 4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,**

- **협력사 전용 펀드** 운영(200억원),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국내 부품업체의 **부품 공급 주선**('16년, 9,150억 원) 등의 **상생협력 사례를 소개**했다.

○ **(쌍용) 자사 최초의 다목적차량(SUV) 전기차 모델**('19년 출시 예정)을 포함해 '22년까지 **매년 1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했다.**

- **마힌드라사**와 부품 공동개발 주선, 정보 공유 및 입찰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**협력업체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**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

○ **(부품업계)** 자동차산업 협동조합에서는 **향후 5년간**('18~'22년) 부품업계가 **약 10조 원 규모**(1차 협력업체 81개사 기준)**를 투자**하여 **2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**할 것으로 전망하고, 1차와 2·3차 협력사 간의 **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**할 것이라고 말했다.

- 이와 함께, 중소·중견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**정부 연구개발(R&D) 지원 확대**와 **우수 인력 확보 방안**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.

□ 백운규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을 **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**하기 위해서는 **정부와 업계가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** 강조하고,

○ **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**하여 **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종원 과장(☎044-203-4320) 또는 김기열 사무관(☎044-203-4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